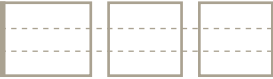


임금유연성 국제비교

박선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머리말

임금유연성 혹은 임금경직성은 거시경제학과 노동경제학 분야의 최대의 관심사들 중의 하나이다. Keynes(1936) 이래로 임금경직성은 실업 및 실업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거시경제 모형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임금경직성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임금유연성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Dickens et al.(2006)이 수행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제임금유연성 연구(International Wage Flexibility Project, 이후 IWFP)라는 이름하에 수행된 이 연구는 16개국을 대상으로 31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60개의 임금변동의 분포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경직성 내지 유연성을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분석결과들로



서는 첫째,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경직성에 대한 증거를 상당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둘째, 그 경직성의 정도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셋째, 임금경직성은 노조가입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기존의 어느 연구와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국가들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임금유연성 내지 경직성의 국가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북미나 유럽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보다 큰 관심사인 아시아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생략되어 있으며, 사용된 자료의 성격이나 임금변수의 성격이 국가 사이에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나아가 임금경직성의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료를 국가별로 모든 연도에 대해 합성함으로써 임금경직성의 정도를 연도별로 달라지는 경제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국제임금유연성연구는 연구 취지 자체가 경기상황과는 무관한 임금경직성 척도를 국가별로 나타내는 데에 있었지만, 동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임금유연성 개념은 오히려 개개인의 생산성과 연계된 기능적 유연성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는가를 다루어 왔다. 이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과 관련된 개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질임금이 순수하게 경기적인 충격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면에서 이 연구들은 실질임금의 수량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이용하여 임금의 유연성/경직성에 대한 국가비교를 시도한다. 우선 Dickens et al.의 연구를 인용하여 임금경직성의 국가비교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비교를 보다 의미 있게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을 국가 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및 수량적인 면에서의 임금유연성의 국제비교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다.

■ 명목 및 실질임금의 기능적 유연성/경직성 국제비교

여기서는 임금유연성/경직성 국제비교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행한 IWFP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비록 IWFP에서 채택한 방법론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임금경직성 측

정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기준하에서 국가비교를 시도한 연구라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임금경직성 척도를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개인의 저항으로 인하여 명목 혹은 실질 임금의 변동이 하방(downward)으로 얼마나 경직되어 나타나는가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것인가에 있다.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측정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두 연도 사이에 직업 변동이 없었던 근로자(job stayer)들을 대상으로¹⁾ 두 연도 사이의 개개인의 로그 임금변화의 상대도수분포를 생각해 보자. 이 표본 분포에 속하는 개개인은 해당 임금변화가 양이거나, 음이거나, 영(0)으로 분류될 것이다.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영(0)인 근로자의 상대도수를 영이거나 음인 근로자의 상대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계산의 이면에서는 임금이 두 시점 사이에서 동결된 사람들은 만약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없었을 경우 모두 음으로 관찰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변화효과는 제거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전혀 없었을 경우 임금변화가 음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개개인의 성과 변화에 기인한다.

실질임금의 (하방) 경직성도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우선 두 연도 사이 명목임금 변화의 상대도수 분포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시간과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값이 영(0)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과 생애 주기 상에서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실질임금의 증가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질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없을 경우 두 연도 사이 명목임금 변화의 분포는 중앙값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가정을 한다. 여기서 만약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따라 실질임금의 삭감에 저항을 한다면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변화의 분포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수준 이하의 임금변화(삭감되었거나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율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같은 분포에서 중앙값+(중앙값-기대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임금 증가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중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IWF에서는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 척도로서 두 비중 사이의 차이를 중앙값+(중앙값-기대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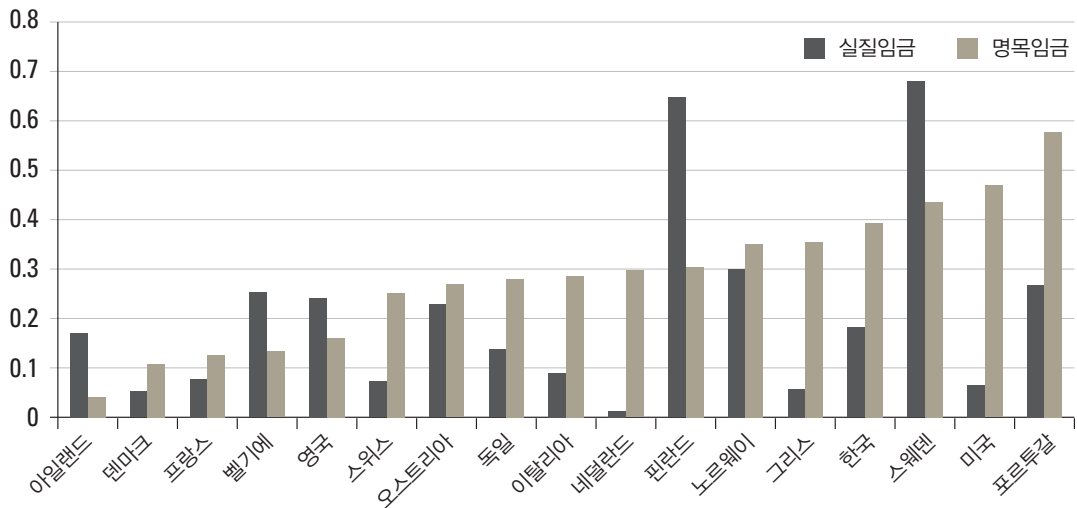
1)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듯이 이직자(job changer)의 임금변화는 다양한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경직성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금 증가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중으로 나누어 사용한다.²⁾

[그림 1]에서 한국을 제외한 16개 국가의 경직성 측정치들은 Dickens et al.(2006)의 [그림 3]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필자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값들이다.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하여 Dickens et al.이 사용한 표본 제약을 가장 유사하게 사용하였다. 유일한 차이점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시간당 임금률이 아니라 조사시점에서 수집한 월평균 급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월단위로 계산한 임금의 변동성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변동과 비교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의 경직성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에서 17개 국가들은 명목임금 경직성의 크기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명목임금 경직성이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0.05를 밑돌고 있으

[그림 1] 명목임금 경직성과 실질임금 경직성의 국제비교



자료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국에 대한 측정치들은 Dickens et al.(2006)의 연구에서 발췌하였으며, 한국의 수치들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직접 계산.

2) 실제 계산에서는 이 비율에 2를 곱하여 실질임금의 경직성 측도로 사용한다. 그 논거에 대해서는 Dickens et al.(2006: 12)을 참고하기 바란다.

며 가장 큰 나라는 포르투갈로 거의 0.6에 이르고 있어 국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가장 작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거의 영(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거의 0.7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약 0.4로 비교 대상 총 17개국 중 포르투갈, 미국, 스웨덴에 이어 넷째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실질임금의 경직성 정도는 총 17개국 중 여덟째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시간당 임금률이 아니라 월급여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의 경직성 정도는 이 수치들이 나타내는 정도보다 더 클 것이다. 한편 [그림 1]을 보면 명목임금의 경직성과 실질임금의 경직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해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임금의 경직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핀란드의 경우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실질임금의 경직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그림에 있는 1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경직성 측정치들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0.26(p값=0.30)으로 실질적으로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은 어디서 오는가? Dickens et al.은 이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명목임금의 경직성과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을 다양한 독립변수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설명변수들로는 노조조직률, 단시간근로 비율, 소득분포, 과업횟수, 고용보호지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수, 대외 개방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종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오직 실질임금의 경직성과 노조가입률 사이에서만 나타났다. 즉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높게 나타나 기능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2011년 기준 10.1%로 미국(11.8)보다도 낮지만 실질임금의 경직성은 17개국 중 최소한 중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평균적인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인상을 준다.



■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 국제비교

이상에서 논한 임금의 경직성 개념은 흔히 거시경제학에서 논의하는 명목 및 실질임금의 경직성, 즉 명목적 및 실질적 충격에 대해 명목 및 실질임금의 반응이 둔하게 반응하는 정도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흔히 말하는 임금의 기능적 유연성과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는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이용하여 국가비교를 시도한다. 앞서 논의한 유연성 개념이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개개인의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이란 실질임금이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량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약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은 시계열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믿어 왔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³⁾ 그러나 대략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실질임금이 매우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olon et al.(1994)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기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개인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 사이의 결과가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 때문이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시시계열자료에 나타난 임금은 경기역행적으로 편의를 갖게 된다. 동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실증분석 연구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여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남성의 경우 실질임금은 약 1.5%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준탄력성(semi-elasticity)은 기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추정치(0~0.5%)와 비교하여 매우 큰 수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존하는 연구들 중 개인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수량적 유연성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⁴⁾

한편 Shin(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을 추정 보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매우 유연하게 변한다는 면

3)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 및 문헌 연구는 Solon and Barsky(1989)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유연하게 조정되어 간다는 발견은 임금경직성에 근거한 전통적인 케인즈안 이론들에 반하는 발견이며, 이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Lucas and Rapping(1969)이나 Mortensen and Pissarides(1994) 등의 거시경제 모형들과 합치되는 특성이다.

에서는 대략 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국가 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동 연구에 의하면 현재까지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을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외에 영국,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간단한 보고를 위하여 연구자들의 이름과 표본의 특성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고 국가 이름만을 이용하여 추정치들을 소개한다. 같은 국가에 대해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할 경우 평균값을 보고하며, 표본을 직업변동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보고할 경우 8대 2의 비율로 가중치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보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준탄력성 수치는 남성의 경우 약 1.5%로 매우 유연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1.5%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영국의 경우 남성은 약 1.5%, 그리고 여성은 약 1.7%로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의 수치들도 대략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유연성을 보이는 국가는 북부 이탈리아로서 해당 수치(남녀 포함)가 약 4%에 이른다.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 지역에 대한 추정치들은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에 나타난 수치들을 종합하면 대략 2% 정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포르투갈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추정된 추정치들은 대략 0.6~1.6%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경기변동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임금률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결과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3.4% 및 2.3%에 이른다. 물론 이상의 비교는 표본기간이나 시기 그리고 표본의 특성, 나아가 사용된 임금변수의 국가 간 차이로 말미암아 엄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실질임금이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로 한정할 때 미국은 물론 (이탈리아를 제외한) 문헌에 나타난 어느 국가보다도 경기변동상에서 수량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가 오직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에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publication bias)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더 크다는 결론은 대체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⁵⁾

5) 외환위기 이전에 대해서는 패널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추정이 어렵지만, 동 연구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기



■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임금유연성의 국가비교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한계점들을 무시한다면, 한국의 임금은 수량적인 면에서는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미국이나 영국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보다도 못지않게 유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평균 이상의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량적 유연성 확보보다는 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물론 임금이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경직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연성 내지 경직성 측정방법의 개선, 국제비교 시 표본 및 임금변수의 성격을 국가 사이에 일치시키는 작업, 임금변수의 측정 오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집계자료(administrative data)의 사용 등이 향후 연구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임금경직성의 측정문제를 넘어서 임금의 경직성이 그 자체로서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및 이론적 차원 모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KLI**

간에 한정시켜 분석할 때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은 비록 개인패널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경우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는 한국의 경우 구성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성의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크게 달라져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면을 고려하여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대해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을 추정할 결과 준탄력성의 값이 1.7%로 여전히 경기순행적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며 그 절대값도 같은 시계열자료로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 추정한 수치인 2.7%보다 작다.

참고문헌

- Dickens, William T., Lorenz Goette, Erica L. Groshen, Steiner Holden, Julian Messina, Mark E. Schweitzer, Jarkko Turunen, and Melanie E. Ward(2006), “How Wages Change: Micro Ev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Wage Flexibility Project,”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06–20.
- Keynes, John Maynard(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 Lucas, Robert E. Jr. and Leonard A. Rapping(1969), “Real Wages, Employment, and Inf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5), pp.721~754.
- Mortensen, Dale T. and Christopher A. Pissarides(1994),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3), pp.397~415.
- Shin, Donggyun(2012), “Cyclicality of Real Wages in Korea,”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12(1) (Contributions), Article 2.
- Solon, Gary, and Robert Barsky(1989), “Real Wages over the Business Cycl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2888*.
- Solon, Gary, Robert Barsky, and Jonathan A. Parker(1994), “Measuring the Cyclicalities of Real Wages: How Important Is Composition Bia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1), pp.1~26.